보험금융연구 제37권 제1호(2026. 2) pp. 49-80
DOI: https://doi.org/10.23842/jif.2026.37.1.002

보험설계사의 소득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Insurance Agents' Income

김 성 균*· 김 석 영**
Seongkyun Kim· Seog Young Kim

본 연구는 보험설계사의 소득 편차와 양극화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소득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MDRT 설계사를 포함한 1,530명의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과, MDRT 설계사는 고학력 비중, 모집방법의 다양성, 풀타임 근무 비중, 보유 자격증 수 등에서 일반 설계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구간형 응답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 경력과 근무시간이 소득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파트타임 근무가 일반적인 보험설계사 직무 특성상 근무시간 자체가 소득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문 색인어: 보험설계사, 소득 결정 요인, 경력, 근무시간
한국연구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B030100, B050400, B051600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ksk7757@yonsei.ac.kr), 제1저자
**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skim@kiri.or.kr), 공동저자
*** 본 논문에 포함된 모든 내용과 견해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저자들의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논문 투고일: 2025.09.29, 논문 최종 수정일: 2025.12.04, 논문 게재 확정일: 2026.02.13.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수년간 보험산업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고령화의 심화와 저출산의 지속은 보험 수요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으며, 저금리 기조는 보험상품의 수익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모집 채널의 다변화와 경쟁 심화를 동시에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은 여전히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기보다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통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 전달의 핵심적 매개자로 기능하고 있다.

현재 국내 보험설계사 규모는 약 40만 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상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년 약 20만 명 내외의 신규 진입과 이탈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유지되는 피상적 안정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순환적 구조는 직업의 낮은 정착성과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조적 특징이며, 이는 진입 요건과 직업의 특성과도 연결된다.

보험설계사 자격은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응시자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2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다양한 인력이 쉽게 유입되나, 영업역량이 성과와 직결되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장기간 활동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특성은 보험설계사 직업이 전문직으로 자리 잡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며, 직업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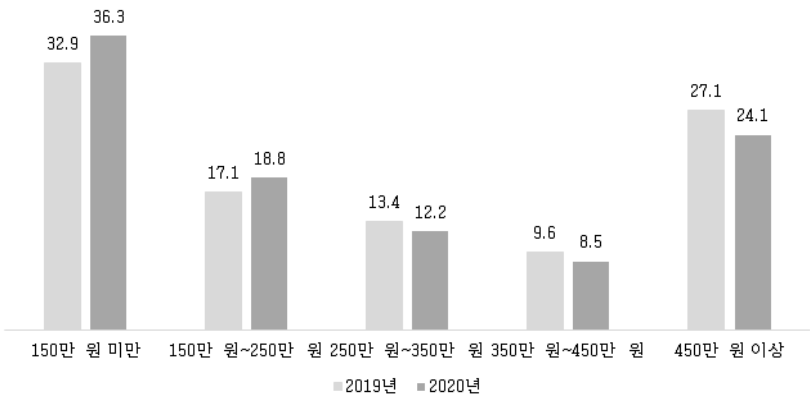
설계사 소득은 개인의 모집 성과에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속 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약 338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1] 소득 분포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동시에 두드러지는 U자형 양극화 구조를 보여 전반적인 소득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2025.04.23.

단정하기는 어렵다(〈그림 1〉 참조).[2)]

〈그림 1〉 전속 생명보험설계사의 소득 분포

(단위: %)



자료: 김동겸(2021)

이러한 소득 분포는 그 원인이 다양하게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신입 설계사가 초기 단계에서 지인 위주의 영업을 통해 일정 수준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나, 시간이 경과하며 추가 고객을 확보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할 수 있고, 고연령 설계사의 경우 저연령 고객과의 접점 마련이나 교감 형성에 한계가 있어 낮은 소득 구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설명이 제기된다.[3)] 반면 일부 설계사는 이러한 불안정한 구간을 견딘 뒤 고효율 설계사로 성장해 고소득을 달성하면서, 결과적으로 U자형 양극화라는 이분화된 구조가 나타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의 설계사가 정규직이 아닌 특수고용직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저소득 구간의 설계사는 부업 수준의 근무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4)] 따라서 저소득 설계사를 단순히 신입 집단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보험설계사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영업역량을 넘어 근무시간, 나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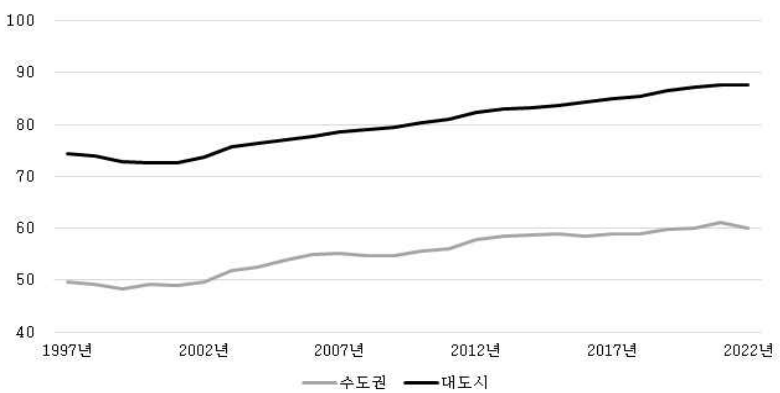
2) 보험설계사는 전속 설계사와 비전속 설계사로 구분되며, 〈그림 1〉에서는 소득 구간별 통계가 집계된 생명보험 전속 설계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3) 김동겸·정인영(2020) 참조
4) 후에 제시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설계사는 전업이 아닌 부업 형태로 월 100~2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모집 방식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으며, 이는 소득 결정 요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김석영(2022)에 따르면, 지역적 요인도 소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도권은 고객 밀집도, 금융 인프라 접근성, 교통 편의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 동일한 시간 투자 대비 높은 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반면 비수도권(지방 등)은 설계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1인당 시장 잠재력은 크지만, 낮은 인프라 접근성과 긴 이동거리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여건은 지방 설계사의 활동을 제약하며, 결과적으로 설계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그림 2〉 참조). 나아가 부족한 비수도권 설계사 수는 지역 보험소비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금융 포용성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림 2〉 생명보험설계사의 지역별 비중 추이: 수도권 및 대도시(1997~2022)

(단위: %)



주: 수도권 비중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생명보험설계사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대도시 비중은 서울을 비롯해 6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울산)와 경기도를 포함하여 계산함
자료: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https://www.klia.or.kr/consumer/stats/yearBook/list.do)

요컨대 보험설계사 직업은 낮은 진입 장벽과 높은 이탈률, 소득의 불안정성과 양극화, 그리고 수도권 편중 등 복합적인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단순한 평균 소득이나 근속 연수와 같은 지표만으로는 설계사 직업의 소득 측면 특성이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보험설계사의 모집 성과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되므로, 이러한 상호작용을 계량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설계사 1,5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험설계사 소득의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표본에는 한국 MDRT 협회 소속 고소득 설계사 213명과,[5] 대형 보험회사 및 중형 GA에 소속된 일반 전속 설계사 1,317명이 포함되어 있다.[6] 분석에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이동시간과 활동지역 등 모집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설계사 간 소득 격차의 구조적 배경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 직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성과 측정·평가 체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최근 인공지능 상담의 도입과 비대면 영업의 확산 등으로 보험모집 구조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역할과 소득 구조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보험설계사 소득의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보험산업의 제도 설계 및 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은 본 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분석에 활용한 설문조사 자료와 전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주요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고소득 설계사 집단인 MDRT 설계사와 일반 전속 설계사 간의 뚜렷한 차이를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가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일반 전속 설계사 집단 내부에서도 MDRT 설계사의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

5)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는 1927년 미국에서 설립된 보험 및 재무설계 전문가들의 국제적 조직으로, 생명보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인정받은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된다.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약 9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MDRT 협회는 2003년 글로벌 본부의 정식 지부로 승인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mdrtkorea.org/mdrt/introduceKR를 참조.

6) 물론 일반 전속 설계사 표본 1,317명은 각 회사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수집된 자료이므로, 이들 가운데 일부는 별도로 MDRT 협회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집단이 반드시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보험설계사의 성과와 소득을 설명하기 위한 기존 연구들은 영업전략, 자격증 보유,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먼저 영업전략과 관련하여, 손우철·강신애(2019)은 설계사의 성과 수준과 교차판매 여부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성과 설계사 집단일수록 교차판매 비중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차판매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설계사일수록 성과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모집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실적 향상의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김동겸·정인영(2020, 2022)은 국내 보험시장의 경쟁 심화 속에서 지인 중심 모집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신시장 개척과 새로운 고객 기반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영업전략의 변화가 실제 소득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규명하지 못하였고,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자격증과 같은 전문성 요인이 설계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지속적으로 탐구되어 왔다. 이덕로 외(2010)는 보험설계사의 이직 요인을 분석한 결과, 보유한 전문자격증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직 가능성이 낮아지고 동시에 성과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자격증 보유가 단순한 지식 축적을 넘어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성과를 신호하는 요인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정원석·이경희(2023)는 종합자산관리사와 같은 고급 자격증이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시키고, 결과적으로 설계사의 소득 수준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생명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약 500~600명을 표본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성과 요인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는 이경희(2019)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10년간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계사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고연령일수록 업무 효율성이 저하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원석·이경희(2023)는 보유 고객 수, 영업전략, 신계약 건수 간의 정(+)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면서 고객 기반의 규모와 전략적 활동이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근무시간이나 이동시간과 같은 현실적 활동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소득의 구조적 편차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요컨대 선행연구들은 영업전략, 보유 자격증, 연령, 고객 기반 등 다양한 요인이 설계사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간접적인 성과 지표나 제한된 변수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소득 격차의 구조적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구조적 원인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능률 설계사의 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되어 온 설계사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실제로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총 1,530명의 설계사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온 경력, 보유 자격증, 모집 방법 등의 변수뿐만 아니라, 기존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근무시간, 이동시간, 활동지역 등 정성적·정량적 요인을 함께 반영함으로써 소득 격차의 구조적 배경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분석 결과, 경력 외에도 근무시간이 소득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설계사 소득의 양극화가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직무 역량의 차이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일부 설계사가 초기부터 기대 소득을 낮게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활동을 조정한 결과, 즉 부업 수준의 근무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II. 사용자료, 전처리 및 기술통계

1. 사용자료

본 연구는 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설계사 직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찰」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된 대규모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보험설계사의 직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성과와 소득을 결정짓는 구조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조사에는 중소형 손해보험회사 1곳(이하 A사), 대형 생명보험회사 1곳(이하 B사), 한국MDRT협회(이하 C사), 그리고 중형 GA 1곳(이하 D사) 소속 설계사들이 참여하였다.

표본 연구에 사용한 표본 규모는 A사 504명, B사 813명, C사 213명으로 총 1,530명

이며,[7] 결측치를 제거한 뒤 1,522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 표본으로 삼았다. 최종 표본은 A사 496명, B사 813명, C사 213명으로 구성된다. 대형 손해보험회사, 중형 생명보험회사, 대형 GA 소속 설계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간 일정한 방향성과 공통된 특성이 나타난다면, 이를 전체 설계사 집단의 일반적 경향을 추론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한된 표본임에도 일정 수준의 추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연구 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설문 문항은 인구통계학적 배경, 직무 특성, 직업 인식을 다면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8] 기초 문항에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수, 최종학력, 설계사 유형, 경력, 활동 지역 등 배경적 요인이 포함되었으며, 심층 문항에는 이동시간, 신계약 건수, 월평균 수입, 모집 방법, 근무형태(풀타임 여부), 근무시간, 보유 자격증 등 직무와 직결된 항목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직업 만족도, 추천 의향, 이직 의향, 직업 전망 등 설계사 본인의 직업 인식을 반영하는 항목도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항 구성은 설계사의 개인적 특성과 영업활동 요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단순한 성과 지표를 넘어 소득 격차의 구조적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설문 문항 중 일부를 선별하여 주요 분석 변수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수, 최종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함께, 월평균 수입, 경력, 활동 지역, 이동시간, 근무시간, 모집 방법의 수, 보유 자격증 수 등 직무 특성을 반영하는 항목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변수 구성을 제한한 취지는,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 항목보다는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소득 결정 요인을 규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2. 전처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응답 자료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일련의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우선 정량 변수의 단위를 명확히 통일하였다. 연령과 경력은 단순히 자기보고식 연수를 사용하는 대신, 각각 응답자의 출생년도와 설계사

7) 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와 달리, D사는 표본 수가 50명에 불과해 통계적 신뢰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 설문 문항의 세부 구성은 부록(설문지)을 참조하기 바란다.

활동 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현재 연도(2025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예컨대 1995년 출생자가 2024년부터 설계사로 활동을 시작한 경우, 2025년 현재 연령은 30세, 경력은 1년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산출 방식은 응답자 간 인식 차이나 보고 오류를 최소화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른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자녀 수는 '명' 단위로 기록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회귀분석에 투입할 수 있도록 더미 변수로 변환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처리하였으며, 결혼 여부는 기혼자를 1, 미혼자를 0으로 설정하였다.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 '전문대 학사', '학사', '석사', '박사'의 다섯 단계로 구분되어 응답되었으나, 박사 응답자의 수가 현저히 적어 석사와 박사를 '석사 이상'으로 통합하였다. 이 중 '고졸 이하'를 기준 범주로 설정하고, 나머지 학력 수준에 대해 각각 더미 변수를 생성하였다.

활동 지역은 당초 8대 경제생활권(수도권(서울·경기·인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대경권(대구·경북), 전남권(광주·전남),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을 기준으로 응답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수도권 외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통합하여 단순 이분화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1, 비수도권은 0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구간형으로 응답된 이동시간, 월평균 수입, 근무시간 변수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특성에 따라 구간 범주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정성 변수 가운데 일부는 분석의 필요에 따라 정량화하였다. 대표적으로 모집 방법과 보유 자격증이 이에 해당한다. 모집 방법은 설계사가 실제 모집활동에서 활용하는 방식(예: 기존 고객, 지인 소개 등)의 수를 기준으로 계량화하였으며, 보유 자격증은 종류별로 집계하여 수치형 변수로 전환하였다.

추가적으로, 일부 변수는 분포 특성과 분석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수리적 변환을 거쳤다. 먼저, 연령 변수는 효과의 비선형성을 허용하기 위해 연령과 그 제곱항을 함께 포함하였으며, 해석의 명확성과 다중공선성 완화를 위해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중심화하였다.[9] 경력 변수는 단순 연수를 사용할 경우 효과가 비선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9) 연령 변수의 중심화 처리 방식은 Aiken, L. S., West, S. G. and Reno, R. R.(1991) 및 Cohen, J., Cohen, P., West, S. G. and Aiken, L. S.(2013)의 방법론적 논의를 참조하였다.

제곱근으로 변환하였다.[10] 이를 통해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점차 완화되는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전처리 과정을 통해 설문 응답 자료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용 데이터로 재구성되었다. 〈표 1〉은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표 1〉 설문 변수 전처리 요약

변수	정의 및 설명	단위
연령	현재 연도(2025) - 출생년도로 산출한 응답자의 연령	세
경력	현재 연도(2025) - 활동 시작 연도로 산출한 응답자의 경력	년
자녀 수	응답자의 자녀 수	명
성별	응답자의 성별(여성=0, 남성=1)	-
결혼 여부	응답자의 기혼 여부(미혼자=0, 기혼자=1)	-
최종학력	응답자의 최종학력: 고졸 이하, 전문대 학사, 학사, 석사, 박사 중 하나로 응답 가능, 박사 응답자는 '석사 이상'으로 통합, '고졸 이하'를 기준으로 더미 변수로 활용(고졸 이하=0, 그 외 각각 1)	-
활동 지역	응답자의 활동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대경권(대구·경북), 전남권(광주·전남),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 하나로 응답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통합하여 변수로 활용(비수도권=0, 수도권=1)	-
모집 방법	응답자의 모집 방법: 지인판매, 지인소개, 신규개척, 기존고객, 고객소개 중 복수 응답 가능, 선택된 모집 방법의 수를 계산하여 변수로 활용	개
보유 자격증	응답자의 보유 자격증: 종합자산관리사, 변액보험판매관리사, 공인재무설계사 등 보유한 자격증에 대해 복수 응답 가능, 선택된 보유 자격증의 수를 계산하여 변수로 활용	개
이동시간	응답자의 일평균 이동시간('30분 이내'~'3시간 이상')에 대한 구간형 응답값을 그대로 활용	-
월평균 수입	응답자의 월평균 수입('100만 원 이하'~'1,000만 원 이상')에 대한 구간형 응답값을 그대로 활용	-
근무시간	응답자의 주평균 근무시간('10시간 이하'~'40시간 이상')에 대한 구간형 응답값을 그대로 활용	-
활동 지역	응답자의 활동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대경권(대구·경북), 전남권(광주·전남),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 하나로 응답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통합하여 변수로 활용(비수도권=0, 수도권=1)	-

주: 근무시간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설문상의 한계로 인해, 일부 응답자는 이동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무시간만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음.

10) Osborne(2002)에 따르면, 제곱근 변환은 우측 비대칭 분포(right-skewed distribution)에서 분산을 안정화하고 극단값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변환 중 하나로 기능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경력 변수는 0~3년 구간에 관측치가 집중된 뚜렷한 우측 비대칭 분포를 보였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제곱근 변환을 적용하였다.

3. 기술통계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응답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A사, B사, C사 각각의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상호 비교한다. 특히 고소득 설계사 집단인 MDRT 설계사와 일반 전속 설계사의 뚜렷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A사와 B사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이들을 묶어 '일반 설계사'로 정의하고 C사인 MDRT 설계사와 심층적으로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 결과는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집단을 비교해보면, 일반설계사의 경우 여성 비중이 현저히 높았으며, A사와 B사 모두에서 40대에서 60대에 해당하는 설계사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였다. 반면 C사의 경우 남성 설계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일반설계사에 비해 30대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 성별 및 연령 분포에서 차별적인 양상이 확인되었다.

〈표 2〉 기술통계량: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

범주		A사		B사		A사 + B사		C사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성별	남성	88	17.74	21	2.58	109	8.33	71	33.33
	여성	408	82.26	792	97.42	1,200	91.67	142	66.67
연령	20대 이하	4	0.81	5	0.62	9	0.69	3	1.41
	30대	33	6.65	51	6.27	84	6.42	36	16.90
	40대	125	25.20	247	30.38	371	28.42	65	30.52
	50대	222	44.76	372	45.76	594	45.38	86	40.38
	60대	104	20.97	129	15.87	233	17.80	23	10.80
	70대 이상	8	1.61	9	1.11	17	1.30	0	0.00
총합		496	100	813	100	1,309	100	213	100

주: 반올림 오차로 인해 백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경력 측면에서는 일반설계사 집단이 중년차(5~10년) 설계사의 비중이 높았으나 동시에 저년차(2년 이하) 비중도 상당히 높은 이중적 구조를 보였다. 반대로 C사 설계사의 경우 저년차 설계사의 비중은 낮았으며,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설계사가 약 80%를 차지해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축적한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표 3〉 기술통계량: 경력

(단위: 명, %)

범주		A사		B사		A사 + B사		C사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경력	0년	12	2.42	66	8.12	78	5.96	0	0.00
	1년	66	13.31	206	25.34	272	20.78	13	6.10
	2년	50	10.08	97	11.93	147	11.23	12	5.63
	3년	29	5.85	43	5.29	72	5.50	11	5.16
	4년	17	3.43	35	4.31	52	3.97	7	3.29
	5~9년	96	19.35	104	12.79	200	15.28	41	19.25
	10~14년	61	12.30	52	6.40	113	8.63	31	14.55
	15~19년	67	13.51	49	6.03	116	8.86	45	21.13
	20~24년	36	7.26	60	7.38	96	7.33	36	16.90
	25~29년	39	7.86	52	6.40	91	6.95	11	5.16
	30년 이상	23	4.64	49	6.03	72	5.50	6	2.82
총합		496	100	813	100	1,309	100	213	100

주: 반올림 오차로 인해 백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월평균 수입에서는 C사 집단이 고소득 설계사라는 점에서 더욱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11] 일반설계사 집단은 약 70%가 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구간에 분포하며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C사 설계사는 95% 이상이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기록하여 소득 수준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4〉 기술통계량: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범주		A사		B사		A사 + B사		C사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월평균 소득 (만 원)	100 이하	27	5.44	60	7.38	87	6.65	0	0.00
	100~150	22	4.44	35	4.31	57	4.35	0	0.00
	150~200	45	9.07	56	6.89	101	7.72	0	0.00

11) 2025년도 기준 MDRT 자격 요건은 연간 총수입 117,553,400원 이상(전년도 실적)으로, 월평균 환산 시 약 979만 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MDRT 회원이라 하더라도 월 수입이 1,000만 원 미만일 수 있다. 또한 성적자격 종신회원(Qualifying and Life Member)의 경우 자격 취득 이후에는 성적 제출 의무가 없어, 현 시점의 소득이 MDRT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mdrtkorea.org/membership를 참조하기 바란다.

	200~300	117	23.59	138	16.97	255	19.48	3	1.41
	300~400	68	13.71	148	18.20	216	16.50	3	1.41
	400~500	68	13.71	102	12.55	170	12.99	4	1.88
	500~1,000	102	20.56	193	23.74	295	22.54	74	34.74
	1,000 이상	47	9.48	81	9.96	128	9.78	129	60.56
총합		496	100	813	100	1,309	100	213	100

주: 반올림 오차로 인해 백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이동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 설계사 집단(A사·B사)과 C사 설계사 간에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일평균 3시간 이상 이동하는 설계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2시간 이상 이동하는 응답자가 40~60% 수준을 차지하였다. 반면 근무시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일반 설계사 집단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10시간 이하'에서 '40시간 이상'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 반면, C사 설계사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약 51%)이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적 측면에서 볼 때 C사 설계사가 적어도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수준의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기술통계량: 이동시간 및 근무시간

(단위: 명, %)

범주		A사		B사		A사 + B사		C사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이동시간 (분)	30 이하	30	6.05	14	1.72	44	3.36	1	0.47
	30~60	91	18.35	76	9.35	167	12.76	12	5.63
	60~90	86	17.34	120	14.76	206	15.74	27	12.68
	90~120	90	18.15	130	15.99	220	16.81	39	18.31
	120~150	66	13.31	102	12.55	168	12.83	33	15.49
	150~180	27	5.44	111	13.65	138	10.54	25	11.74
	180 이상	106	21.37	260	31.98	366	27.96	76	35.68
근무시간 (시간)	10 이하	74	14.92	122	15.01	196	14.97	6	2.82
	10~20	104	20.97	186	22.88	290	22.15	20	9.39
	20~30	108	21.77	194	23.86	302	23.07	32	15.02
	30~40	107	21.57	149	18.33	256	19.56	47	22.07
	40 이상	103	20.77	162	19.93	265	20.24	108	50.70
총합		496	100	813	100	1,309	100	213	100

주: 반올림 오차로 인해 백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앞서 살펴본 변수들 외에도 기타 변수들의 평균 및 비율을 산출하여 집단 간 비교를 수행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해당 표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수, 최종학력, 경력, 근무 형태(풀타임 여부), 모집 방법의 수, 보유 자격증 수 등 주요 분석 변수 전반에 걸친 집단 간 분포 차이를 요약한다.

〈표 6〉 전체 기술통계량 요약

(단위: 명, %)

범주	A사		B사		A사 + B사		C사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성별(남자)†	88	17.74	21	2.58	109	8.33	71	33.33
연령	-	53.04 (8.88)	-	51.99 (8.27)	-	52.39 (8.52)	-	48.59 (8.95)
결혼 여부 (기혼)†	450	90.73	752	92.50	1,202	91.83	174	81.69
자녀 수	-	1.74 (0.84)	-	1.90 (0.87)	-	1.84 (0.86)	-	1.49 (0.99)
최종학력(전문대 학사 이하)†	372	75.00	592	72.82	964	73.64	90	42.25
최종학력(학사 이상)†	124	25.00	221	27.18	345	26.36	123	57.75
경력	-	11.28 (10.59)	-	8.92 (10.51)	-	9.81 (10.60)	-	13.08 (8.28)
근무 형태(풀타임)†	400	80.65	671	82.53	1071	81.82	204	95.77
모집 방법의 수	-	1.98 (1.14)	-	1.89 (1.05)	-	1.92 (1.09)	-	2.47 (1.35)
보유 자격증 수	-	0.29 (0.67)	-	0.96 (0.96)	-	0.70 (0.92)	-	1.81 (1.35)
총합	496	100	813	100	1,309	100	213	100

주: † 표시가 있는 범주는 평균값이 아닌 응답자 비율을 나타내며,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일반 설계사와 비교할 때 MDRT 설계사는 여러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12] 먼저 인구통계적 측면에서는 남성 비율이 높고 평균 연령이 낮았으며, 기혼 비율과 자녀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적자본 측면에서는 학력 수준이 더 높고 경력이 더 길게 나타나, 경험과 교육 수준 모두에서 우위를 보였다. 근무 특성을 살펴보면 풀타임 근무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전문성 측면에서는 모집 방법의 다양성과 보유 자격증 수 모두 일반 설계사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12) 집단 간 차이는 평균 비교의 경우 독립표본 t-검정, 비율 비교의 경우 Z-검정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제시된 모든 변수는 1% 유의수준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Ⅲ. 실증분석

앞선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고소득 보험설계사 집단인 MDRT 설계사들의 두드러진 특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설계사 집단 내에서도 고소득 설계사에게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MDRT 설계사의 특성이 일반 설계사의 소득 결정 요인으로도 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13]

1. 분석방법

본 절에서는 Ⅱ장에서 제시한 분석 변수 가운데 수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설명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추정 모형은 아래 수식 (1)과 같다.

$$\begin{aligned}&\log\left(\frac{\Pr(Y_i \le c)}{\Pr(Y_i > c)}\right) \\ &= \tau_c - (\beta_1 \text{성별더미} + \beta_2 \text{결혼더미} + \beta_3 \text{자녀수}_i + \beta_4 \text{수도권더미} \\ &\quad + \beta_5 \text{모집방법수}_i + \beta_6 \text{자격증수}_i + \beta_7' \text{최종학력더미} + \beta_8' \text{이동시간더미}) \\ &\quad - (\gamma_{1c} \text{조정연령}_i + \gamma_{2c} \text{조정연령제곱}_i + \gamma_{3c}\sqrt{\text{경력}_i} + \gamma_{4c}' \text{근무시간더미})\end{aligned} \tag{1}$$

수식 (1)에서 Y_i는 구간형으로 응답된 월평균 소득을 의미하며, $c = 1, 2, \cdots, 7$에 대해 γ_c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의 컷포인트(임계값)를 나타낸다. 최종학력 더미, 이동시간 더미, 그리고 활동지역 더미는 각각 3×1, 6×1, 4×1 벡터 형태의 더미 행렬로 구성된다. 우변의 첫 번째 소괄호는 공통계수(비례오즈) 부분을, 두 번째 소괄호는 컷포인트별 계수(부분비례오즈) 부분을 나타낸다.

13) MDRT 설계사 집단 내부에서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두드러진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사에서 약 35%의 설계사가 500만 원~1,000만 원, 약 61%가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대부분이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소득과 근로시간을 구간별로 취합한 설문 설계에서 비롯된, 본 연구의 한계이다.

2. 분석결과

상기에서 정의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1)의 추정 결과는 아래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표 7〉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범주	A사		B사		A사 + B사	
	추정계수	오즈비	추정계수	오즈비	추정계수	오즈비
성별 (남자=1)	0.1252 (0.544)	1.133	0.2192 (0.523)	1.245	0.0540 (0.287)	1.055
조정연령	-0.0169 (-1.459)	0.983	-0.0162 (-1.599)	0.984	-0.0168** (-2.245)	0.983
조정연령^2	-0.0010 (-1.259)	0.999	-0.0024*** (-3.413)	0.998	-0.0018*** (-3.431)	0.998
결혼 여부 (기혼=1)	0.9333*** (2.849)	2.543	-0.0991 (-0.379)	0.906	0.2818 (1.387)	1.326
자녀 수	-0.0493 (-0.427)	0.952	0.0287 (0.352)	1.029	0.0236 (0.359)	1.024
최종학력 (전문대 학사=1)	0.2331 (1.185)	1.262	-0.0025 (-0.017)	0.997	0.0987 (0.838)	1.104
최종학력 (학사=1)	0.1591 (0.720)	1.172	-0.1302 (-0.767)	0.878	0.0137 (0.103)	1.014
최종학력 (석사 이상=1)	1.0687** (2.185)	2.911	0.4335 (1.259)	1.543	0.6705** (2.412)	1.955
경력	0.5550*** (8.202)	1.742	0.3589*** (6.734)	1.432	0.3961*** (9.977)	1.486
활동 지역 (수도권=1)	0.0613 (0.364)	1.063	-0.1427 (-1.107)	0.867	-0.0898 (-0.890)	0.914
이동시간 (선형 대비)	0.3180 (1.128)	1.374	0.4448 (1.389)	1.560	0.5394*** (2.812)	1.715
이동시간 (2차 대비)	-0.2052 (-0.831)	0.815	-0.2956 (-0.986)	0.744	-0.2943* (-1.669)	0.745
이동시간 (3차 대비)	0.2754 (1.095)	1.317	-0.2171 (-0.851)	0.805	-0.0522 (-0.319)	0.949
이동시간 (4차 대비)	0.0520 (0.199)	1.053	-0.1910 (-0.911)	0.826	-0.1557 (-1.049)	0.856
이동시간 (5차 대비)	-0.0791 (-0.330)	0.924	0.2132 (1.152)	1.238	0.0242 (0.175)	1.025
이동시간 (6차 대비)	-0.1182 (-0.570)	0.889	0.0430 (0.259)	1.044	-0.0192 (-0.151)	0.981
모집 방법 수	0.1760** (2.460)	1.192	0.2607*** (4.081)	1.298	0.2063*** (4.347)	1.229
근무시간 (선형 대비)	1.1338*** (5.350)	3.107	1.0945*** (6.429)	2.988	1.0737*** (8.180)	2.926

근무시간 (2차 대비)	0.2254 (1.165)	1.253	0.2589* (1.719)	1.295	0.1874 (1.607)	1.206
근무시간 (3차 대비)	0.1729 (0.959)	1.189	0.1137 (0.794)	1.120	0.1306 (1.179)	1.139
근무시간 (4차 대비)	-0.0055 (-0.032)	0.994	0.0908 (0.679)	1.095	0.0649 (0.620)	1.067
보유 자격증 수	0.1313 (1.072)	1.140	0.1389* (1.809)	1.149	0.1709*** (2.922)	1.186
표본 수	496		813		1,309	
모형 적합도	LR χ^2(22)=179.16 (p<0.01), McFadden R^2=0.093, Nagelkerke R^2=0.309		LR χ^2(22)=222.91 (p<0.01), McFadden R^2=0.070, Nagelkerke R^2=0.245		LR χ^2(22)=371.02 (p<0.01), McFadden R^2=0.072, Nagelkerke R^2=0.252	

주: 추정계수 열 안의 괄호 안 수치는 z-통계량을 나타냄; * p<0.1, ** p<0.05, *** p<0.01; 주요 수치형 변수 간 피어슨 상관계수는 |r|≤0.57 수준으로 변수 간 상관은 중간 이하임; 다중공선성 점검 결과, 자유도를 반영한 GVIF의 조정치(GVIF_adj=GVIF^(1/(2*Df)))는 최대 1.43으로, 일반적 허용기준(GVIF_adj<2)을 충분히 만족함

분석 결과, A사에서는 결혼 여부, 경력, 근무시간이 모두 유의수준 1% 이하에서 소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B사의 경우에도 경력, 모집방법의 수, 근무시간이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 두 회사를 통합한 일반설계사 집단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경력, 이동시간, 모집방법의 수, 근무시간, 보유 자격증 수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소득이 근무투입과 영업활동의 폭, 전문성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14]

아울러 일부 변수들은 유의수준 5% 이내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A사에서는 석사 이상 고학력자의 소득이 기준집단인 고졸 이하 설계사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모집방법의 수 또한 일정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 설계사 전체를 분석한 모형에서는 연령이 소득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팔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석사 이상 고학력자의 소득이 다른 학력 수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학력 수준이 일정 부분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14) 특히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소득 결정 과정에서 경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근무시간 역시 독립적으로 주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는 일반설계사의 풀타임 근무 비중(약 80%)이 MDRT 설계사(약 9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결과이다(<표 5> 참조).

각 변수의 오즈비(odds ratio)를 통해 구체적인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경력의 오즈비는 약 1.4~1.7 수준으로, 경력이 1년 증가할 때 상위 소득 그룹에 속할 확률이 약 40~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의 오즈비는 2.9~3.1 수준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고소득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짐을 보여준다. 한편, 모집방법의 수와 보유 자격증 수의 오즈비는 각각 1.1~1.3 수준으로, 모집활동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높을수록 소득이 상위 구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활동 지역과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수도권 설계사가 비수도권 설계사에 비해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기술통계에서 나타난 수도권 설계사 비중의 집중 현상이 단순히 고소득을 목표로 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모집시장 구조나 근무환경 등 비금전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소득 수준의 차이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금융 인프라의 부족이나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등 영업환경의 질적 격차가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다.

종합하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소득이 단순한 인구학적 요인보다 경력, 근무시간, 모집활동의 폭, 전문성 등 직무 관련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설명되는 구조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모든 집단에서 경력과 근무시간이 소득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더불어 모집활동의 다양성과 자격증 보유 여부가 소득 향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원석·이경희(2023)의 연구결과와도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술통계에서 확인된 MDRT 설계사의 특성이 단순한 집단 간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일반 설계사 집단 내부의 소득 구조에서도 부분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MDRT 설계사에게서 두드러진 경력, 근무시간, 모집활동, 전문성 요인이 일반 설계사 집단에서도 일정 정도 유의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험설계사의 소득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직업 내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경력과 근무시간은 소득 수준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보험설계사의 성과가 단순한 영업 역량을 넘어 근무시간과 경력 축적 여부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보여준다. 나아가 소득의 양극화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은 결과라기보다는, 일부 설계사가 초기부터 기대소득을 낮게 설정하고 부업 수준의 근무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낮은 진입 장벽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탈률이 지속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소득 향상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통해 근속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전문성 축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총소득 지표만으로는 보험설계사의 성과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동일한 소득을 기록한 설계사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의 차이에 따라 생산성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 측정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현재의 총소득 중심 지표는 설계사의 실제 성과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며, 근무시간 대비 성과와 같은 효율성 지표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경우 생산성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과 평가 체계는 총소득 중심의 단일 지표에서 벗어나, 근무시간 등 투입 요인을 반영하는 다면적 기준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MDRT 설계사와 일반 설계사 집단 모두에서 소득을 결정짓는 공통 요인이 확인되었다. 두 집단 모두 경력이 길수록 소득이 높아지고,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상위 소득 구간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MDRT 설계사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난 일부 특성은 일반 설계사 집단에서는 동일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MDRT 설계사의 특성이 단순히 고소득 집단의 표면적 특징에 그치지 않고, 일반 설계사 집단 내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도 일정한 설명력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두 집단 간 구조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표본 규모와 구성, 그리고 시점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의

소득 구조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경력, 근무시간, 이동시간, 활동 지역 등 구조적 요인들이 소득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제도 설계와 정책 논의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분석이 횡단면적 설문 자료에 기반하고 있어 장기적 추세를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와 제도적 변수를 포함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2025. 4. 23.

김동겸(2021), “코로나19로 인한 설계사 소득변화 특징”, KIRI 리포트, 제516호, 보험연구원.

_____·정인영(2020), “설계사 정착률 현황과 보험회사의 과제”, KIRI 리포트, 제505호, 보험연구원.

_____·_____(2022), “설계사 소득하락 원인과 평가”, KIRI 리포트, 제552호, 보험연구원.

김석영(2022), “전속설계사의 분포와 시사점”, KIRI 리포트, 제558호, 보험연구원.

손우철·강신애(2019), “직업경험을 중심으로 한 보험상품 교차판매 성과의 결정요인 분석”, 서비스 연구, 제9권 제3호, 서비스사이언스학회, pp. 39-60.

이경희(2019), “보험설계사의 연령과 생산성에 대한 사례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리스크관리학회, pp. 1-30.

이덕로·안철경·권인수(2010), “생명보험설계사의 이직 결정요인”,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pp. 285-304.

정원석·이경희(2023), “보험설계사의 자격증과 영업전략이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험학회지, 제133호, 한국보험학회, pp. 49-71.

Aiken, L. S., West, S. G. and Reno, R. R.(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Publications.

Cohen, J., Cohen P., West, S. G. and Aiken, L. S.(201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Routledge.

Osborne, J. W.(2002). “The Effects of Minimum Values on Data Transform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LA, April 2002 (ERIC Document ED463313).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ructural causes of income disparity and polarization among insurance agents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ir income.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1,530 insurance agents, including MDRT members, the study employs an ordered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account for the ordinal nature of the income variable. Summary statistics suggest that MDRT agents differ markedly from general agents in several respects, including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greater diversity of client acquisition methods, a higher proportion of full-time workers, and a larger number of professional certifications. The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at work experience and working hours are key determinants of income. This implies that, given the prevalence of part-time work among insurance agents, the amount of time devoted to work exerts a direct and substantial influence on income levels.

※ Key words: Insurance Agents, Determinants of Income, Work Experience, Working Hours

부록 (설문지 문항)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남 ○ 여

SQ2) 귀하의 출생년도는 언제이십니까?

○ 1939년 이전
○ 1940년
○ 1941년
○ 1942년
○ 1943년
○ 1944년
○ 1945년
○ 1946년
○ 1947년
○ 1948년
○ 1949년
○ 1950년
○ 1951년
○ 1952년
○ 1953년
○ 1954년
○ 1955년
○ 1956년
○ 1957년
○ 1958년
○ 1959년
○ 1960년
○ 1961년
○ 1962년
○ 1963년
○ 1964년
○ 1965년
○ 1966년
○ 1967년
○ 1968년
○ 1969년
○ 1970년
○ 1971년
○ 1972년
○ 1973년
○ 1974년
○ 1975년
○ 1976년
○ 1977년
○ 1978년
○ 1979년
○ 1980년
○ 1981년
○ 1982년
○ 1983년
○ 1984년
○ 1985년
○ 1986년
○ 1987년
○ 1988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이후

SQ3) 귀하는 현재 결혼하신 상태이십니까?

○ 네 ○ 아니오

SQ4) 귀하는 몇 명의 자녀가 있으십니까?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SQ5)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고졸 이하 ○ 전문대 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SQ6)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형태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 생명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 독립 GA 소속 설계사
○ 손해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 자회사 GA 소속 설계사

SQ7) 귀하께서는 현재 기관에 소속되기 전 어떤 형태로 활동하셨습니까?

○ 생명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 자회사 GA 소속 설계사
○ 손해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 활동하지 않음
○ 독립 GA 소속 설계사

SQ8) 귀하께서는 몇 년도부터 설계사로서 활동하셨습니까?

○ 1959년 이전	○ 1982년	○ 2005년
○ 1960년	○ 1983년	○ 2006년
○ 1961년	○ 1984년	○ 2007년
○ 1962년	○ 1985년	○ 2008년
○ 1963년	○ 1986년	○ 2009년
○ 1964년	○ 1987년	○ 2010년
○ 1965년	○ 1988년	○ 2011년
○ 1966년	○ 1989년	○ 2012년
○ 1967년	○ 1990년	○ 2013년

○ 1968년
○ 1969년
○ 1970년
○ 1971년
○ 1972년
○ 1973년
○ 1974년
○ 1975년
○ 1976년
○ 1977년
○ 1978년
○ 1979년
○ 1980년
○ 1981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SQ9) 귀하께서 현재 주로 활동하고 계신 지역은 어느 지역이십니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 대경권(대구, 경북)
○ 전남권(광주, 전남)
○ 제주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Q1) 귀하께서는 보험모집을 위해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이동하십니까?

○ 30분 이내
○ 30분~1시간
○ 1시간~1시간 30분
○ 1시간 30분~2시간
○ 2시간~2시간 30분
○ 2시간 30분~3시간
○ 3시간 이상

Q2) (주관식) 귀하께서는 작년에 월평균 몇 건의 신계약을 모집하셨습니까?

[종신보험]
○ 0건
○ 1건
○ 4건
○ 5건
○ 8건
○ 9건

○ 2건 ○ 6건 ○ 10건 이상
○ 3건 ○ 7건

[저축보험(연금 포함)]
○ 0건 ○ 4건 ○ 8건
○ 1건 ○ 5건 ○ 9건
○ 2건 ○ 6건 ○ 10건 이상
○ 3건 ○ 7건

[건강보험(제3보험)]
○ 0건 ○ 4건 ○ 8건
○ 1건 ○ 5건 ○ 9건
○ 2건 ○ 6건 ○ 10건 이상
○ 3건 ○ 7건

[자동차보험]
○ 0건 ○ 4건 ○ 8건
○ 1건 ○ 5건 ○ 9건
○ 2건 ○ 6건 ○ 10건 이상
○ 3건 ○ 7건

[기타]
○ 0건 ○ 4건 ○ 8건
○ 1건 ○ 5건 ○ 9건
○ 2건 ○ 6건 ○ 10건 이상
○ 3건 ○ 7건

Q3) 귀하께서는 보험모집 업무를 통해 작년 한 해 월평균 얼마의 수입을 버셨습니까?

○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400만 원
○ 100만 원~150만 원 ○ 400만 원~500만 원
○ 150만 원~200만 원 ○ 500만 원~1,000만 원
○ 200만 원~300만 원 ○ 1,000만 원 이상

Q4) 귀하의 수입은 본인 가구 전체 수입의 몇 %를 차지하십니까?

○ 25% 이하 ○ 25%~50%

○ 50%~75%　　○ 75% 이상

Q5) (복수응답 가능) 귀하의 보험모집 방법은 다음 중 주로 어느 것에 해당하십니까?

○ 지인판매　　○ 지인소개
○ 신규개척　　○ 기존고객
○ 고객소개

Q6) 귀하께서는 현재 근로소득을 위해 보험모집만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 예, 풀타임(full-time)으로 활동 중
○ 아니오, 파트타임(part-time)으로 활동 중

Q6-1) 현재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족 또는 육아 돌봄　　○ 건강상의 이유
○ 개인 사업 운영　　○ 불충분한 설계사 소득
○ 개인 여유시간에 모집 활동　　○ 기타 (주관식 응답)
○ 불규칙한 수입

Q7) 귀하께서는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전문성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1 ○
2 ○
3 ○
4 ○
5 ○
매우 높음

Q8) 귀하께서는 현재의 보험설계사 시험이 전문 자격시험으로써 난이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쉬움

1 ○

2 ○

3 ○

4 ○

5 ○

매우 어려움

Q9) 지난 1년 동안 한 달 평균 1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하셨습니까?

○ 10시간 이하 ○ 10시간~20시간

○ 20시간~30시간 ○ 30시간~40시간

○ 40시간 이상

Q10) 귀하께서는 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1 ○

2 ○

3 ○

4 ○

5 ○

매우 만족

Q11) 귀하께서는 설계사라는 직업을 가족 또는 친인척에게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매우 추천 ○ 비교적 추천

○ 그저 그렇다 ○ 비교적 비추천

○ 매우 추천

Q11-1) 추천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높은 소득 가능성 ○ 성과 기반 보상 체계

○ 자율적인 업무 시간 및 환경 ○ 정년 제한 없이 근무 가능

○ 기타 (주관식 응답)

Q11-2) 비추천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설계사라는 직업 특성상 낮은 소속감

○ 불투명한 미래 및 낮은 장래성

○ 설계사라는 직업의 사회적 평판

○ 불규칙한 근로시간(예: 저녁시간 고객 미팅)

○ 불규칙한 소득

○ 기타 (주관식 응답)

Q12) 과거에 비해 고객 모집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쉬워짐

1 ○

2 ○

3 ○

4 ○

5 ○

매우 어려워짐

Q13) 귀하께서는 인공지능 설계사가 설계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면 설계사와 비대면 설계사를 모두 대체할 것이다

○ 대면 설계사를 보완, 비대면 설계사를 대체할 것이다

○ 대면 설계사를 대체, 비대면 설계사를 보완할 것이다

○ 대면 설계사와 비대면 설계사를 모두 보완할 것이다

○ 독립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다

Q13-1) 대체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년 이내 ○ 5년~10년

○ 10년~15년 ○ 15년~20년

○ 20년 이상

Q14) 귀하께서는 동일한 임금이라면 타 업종으로 이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매우 있다 ○ 대체로 있다

○ 그저 그렇다 ○ 대체로 없다

○ 매우 없다

Q14-1) 이직 의향이 있으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설계 직업의 낮은 소속감

○ 불투명한 미래 및 낮은 장래성

○ 설계사 직업의 사회적 평판

○ 불규칙한 근로시간(예: 저녁시간 고객 미팅)

○ 불규칙한 소득

○ 기타 (주관식 응답)

Q15) 귀하께서는 과거 또는 현재 우수 인증 설계사 또는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였던 적이 있으십니까?

○ 네 ○ 아니오

Q16) (복수응답 가능) 귀하께서는 다음 자격증 중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 없음
○ 종합자산관리사
○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 공인재무설계사(AFPK)
○ 펀드투자상담사
○ 증권투자상담사
○ 언더라이터(CLKU, AKLU, FKLU)
○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 개인보험심사역(APIU)
○ 공인회계사(CPA)
○ 세무사
○ 기타 (주관식 응답)

Q17) 귀하께서는 설계사가 첫 직업이십니까?

○ 네 ○ 아니오

Q18) 귀하께서 설계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존 직장 은퇴 연령에 도달해서
○ 근무 유연성이 높아서
○ 직업으로서 진입 장벽이 낮아서
○ 일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어서
○ 관련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 기타 (주관식 응답)

Q19) 귀하께서 설계사를 처음 선택했던 시기로 돌아가게 된다면 설계사 직업을 다시 선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매우 없다

1 ○

2 ○

3 ○

4 ○

5 ○

매우 있다

Q20) 귀하께서는 설계사라는 직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비관적 ○ 비교적 비관적

○ 현재와 비슷할 것 ○ 비교적 낙관적

○ 매우 낙관적

Q20-1) (복수응답 가능) 그렇게 생각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타 업종 대비 설계사 평균 임금

○ 소비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여 판매가 어려움

○ 사회적 인식 및 평판

○ 보험의 중요성 및 기능

○ 인공지능의 발전

○ 기타 (주관식 응답)